

기 도

697. 관상... 봉쇄! 이것이 우리의 염원입니다. 우리 가난한 삶이 하느님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피부를 통해 하느님을 환히 들여다 보이게 될 만큼 열렬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생생한 믿음으로, 신학적인 희망으로, 보다 깊은 사랑으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 두 눈이 다 타버릴 때까지 그 얼굴을 관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698. 관상보다 더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이 보다 더 실제적이고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활동의 역동성은 지나가지만, 관상은 영원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관상은 이 가난한 티끌이 어머니이신 교회의 신비 안에서 새로운 힘이 되게 합니다.

699.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느님을 모셔 들이고 그분이 활동하도록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 일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굳센 바위가 되게 합니다. 온 세상이 그 영혼 안에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700. 기도하는 영혼은 하느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지극히 신뢰로 그분 안에서 가난하고 병든 인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701. 기도는 단순히 노를 저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노를 저어 가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다에서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노를 놓아버리고 사랑의 노를 강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바다 깊은 데로 저어 가십시오.

702. 영혼은 멀리 바라 볼 때, 비로서 자신을 태우는 무한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습니다. 보다 멀리 바라 보십시오. 그러나 답은 안에 있습니다.

703.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 인생의 닳을 내리는 것, 여기에 위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성소를 발견하십시오.

704. 관상이란 영혼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해도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관상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705. 아주 깊이 잠심하십시오. 모든 감각을 안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분산되지 말고 좀 더 섬세하게 자신을 내어 주십시오. 신비 안에 들어가십시오, 관상자가 되십시오.

아무것도 보려 하지 말고, 맛보려 하지도 마십시오. 하느님의 장관을 관조하며 그분의 끝없는 무한함 속에 잠겨 드십시오.

706. 관상의 신비를 향해 투신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침묵하는 관상자가 되십시오. 그런 다음 그대 얼굴에 새겨진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

707. 하느님 안에서 시작하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습니다.

끊임 없이 변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관상은 나에게 진실을 말해 줍니다. 곧 하느님께서 나를 그분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해 줍니다

708. 하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바라볼 때. 사물 저 너머에 있는, 훨씬 저 너머에 있는 비밀을 감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무한한 지평선 속으로 사라진 그대의 눈동자는 오직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이 지상은 너무도 초라하게 보이고, 하느님을 관조할 때 하늘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709. 기도는 향주덕의 신학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적 생명이 활동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710.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당신의 위대한 삶이 꺼져가는 순간,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요한 19,30)”라고 말씀하신 기도였습니다.

711. 감실 앞의 고독 안에서, 그 무한한 신비 안에 온전히 쉬십시오. 그대의 상상과 감각, 영혼의 능력, 그대 존재 전체가 편히 쉬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느님 안에 그대의 사랑이 안식을 누리게 하십시오.

712. 한 나라의 참된 보화는 기도하는 영혼들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인 세

상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 영혼 안에 모든 이를 보화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보화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대 손에 신비로운 보화가 넘치도록 들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713.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지극히 성실해야 합니다. 혹시 큰 일이 그대에게 주어진다면 말이지요.

714. 기도하는 영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줄 압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으로 견고해진 영혼입니다. 오늘 결정한 것을 내일 반복하지 않는 고요하고 안정되며 굳센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715.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러나는 기쁨, 신비 안에 고정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소이자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관상 기도 안에 우리는 영원토록 닳을 내릴 것입니다. 수단과 목표가 합쳐지는 인생의 최종 목표를 자신의

성소로 갖는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훌륭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716. 알찬 삶이 있기 위해서는 알찬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도 짙고, 깊이 있으며 힘있는 기도,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고, 영혼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717. 그대의 삶이 기도로 이어지고 그대의 기도는 삶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718. 기도의 영혼이 되기 위해, 하느님 사랑의 확고한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뿐입니다. 그 것은 진지하게 원하는 것, 원하고 또 원하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 것도 아닌, 가난한 우리가 당신의 신비스러운 뜻 안에 굳세어 지길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궤도 안으로 들어 간다는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방식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에 기대는 사람만이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 하느님의 가슴에 기대어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19. 나자렛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고된 노동과 흙 먼지,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동시에 깊은 침묵과 기도와 하늘 나라의 표징이 있습니다. 나자렛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720.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밤 새워 기도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알려 주십니다.

이 위대한 스승께서 나자렛에 계십니다. 대패질을 하며 먼지를 뒤집어 쓰신 채 거기 계십니다. 먼지투성이인 이 지상으로부터 평화와 사랑과 행복의 영역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오벨리스크와도 같이 우뚝 서 계십니다.

721.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친밀하고 살아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거기, 그대 영혼 깊은 곳에 계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현존하시는지 그대 자신의 존재보다 더 강하게 거기 계십니다.

722. 기도는 힘듭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침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영원하신 말씀...! 이를 침묵 속에, 아주 깊은 침묵 속에 존경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723. 기도하는 영혼들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혁명가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인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향해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스런 발라드를 노래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그들을 직접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참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2마카 15, 14)

724.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열광케 합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온 교회를 향기로 가득 채웠던 그 모습... 그대의 옥합을 하느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 15)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발자취만으로도 신비를 남겨 놓을 것입니다.

725.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한 밤의 기도의 신비 속에 깊이 잠기십시오.

시오. 그 기도에는 교회를 위한 생명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726. 영혼을 자극하고 삶을 투신하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는 관상자, 곧 하느님과 깊이 일치되어 있는 영혼에게서 흘러 나옵니다.

그분께서 속삭이실 때 우리의 말은 빛으로 가득해지고, 삶은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느님의 소리가 되고, 하느님의 맛을 지니며 하느님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727. 기도는 방패이며 무기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유형의 사람들, 또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필요한 영혼의 요구입니다. 아무리 작고 부족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728. 그대의 시선을 좀 더 거두어 들이지 않는 한, 그대 영혼은 관상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의 말에는 부드러움이 결핍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호기심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러면, 온유와 평화,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29. 그분 발치에 가만히 앉아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다만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신적 시선 아래 살라지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

730. 보십시오,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요! 그분은 무한이시고, 그대는 허무입니다. 무한하신 그분께 그대를 던지고, 자신에 대해서는 잊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관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731. 아버지! 빛의 영역에 깊이 잠겨 들어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물이 새로운 색조를 띠게 되고 우리 삶이 영원한 신비에 뿌리 내리며, 절대적인 것을 향해 사랑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곳, 그 영역 안으로 들어 가고 싶습니다..

732. 그대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그대가 원한다면,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그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숭고한 일이 될 것입니다.

733.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요한 4,10). 하느님의 선물은 바로 하느님 자신입니다. 그분께서는 기도 안에서 영혼에게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734. 자기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살아지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사시도록 말하십시오. 기도가 이 일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충전된 영혼, 더 정확히 말해 기도를 방전시키는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735. 모두가 그대 안에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는 모든 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대는 단지 매일의 기도 안에서 축성되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성사의 표징이 되십시오.

736. 많은 아이디어들, 과도한 독서, 지나친 노력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느님은 기도하는 영혼이 깊은 침묵과 고요 중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걱정이나 불안 없이 그분의 사랑스런 손길에 온전히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영혼은 천천히 하느님화 되어 가고, 교회의 거대한 지평선을 정화시켜 갑니다.

737, 불의 성령강림절... 그대가 온전히 축성 되는 날! 영혼은 관상의 경지 안에 살아가게 되고 거기 하느님의 가슴에 조용히 기대어 하느님에 대한 신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질문하고, 그분

은 대답하십니다. 그분 심장의 고동 소리를 귀 여겨 들으십시오.
그 고요한 신비가 그대의 삶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738.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빠져 들어 가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둔 채 그분 안에 깊이 잠겨, 시간의 경계를 뚫고 영원으
로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신비스런 대양으로부터
그 사랑의 향기를 이 지상에 퍼뜨려 주십시오.

739. 하느님 평화의 신비는 관상 안에서 드러납니다. 베들레헴의
평화, 나자렛의 평화, 골고타의 평화, 그리고 성체 성사의 평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관상을 통해 저 높은 곳의 평화, 사랑의 평화를 정복할 수 있습
니다.

740. 관상자가 되는 것은 새롭고도 심오한 책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
신을 투신하는 영혼에게 온 세상의 무게가 걸려 있습니다.

741. 우리의 의지가 충만하게 갈망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의 분

위기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강렬한 기도, 그분의 현존을 열망하는 기도, 찾고 있는 분을 만나지 못할 때 애타게 탄식하고, 만날 때 더욱 갈망하게 되는 기도...!

742. 기도 안에서 영혼은 굳세어지고, 그 의지는 바위처럼 굳건해 집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이미 영원의 지평선을 넘어선 사람처럼 느껴 집니다..

743. 조배라는 말보다 더 강한 요구가 담긴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각까지 요구합니다. 보다 완전한 자아 포기와 자기 잊음 그리고 가장 철저한 자기 증여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느님께서 채우시도록 존재의 구석 구석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744. 조배란 하느님의 모든 권리와 그분의 절대적인 무한성을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의 허무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 안에 조배의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745. 나자렛의 침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복된 성가정처럼 그대도 침묵 속에 일하며 거기서 그대 기도의 자리를 만나십시오.

746.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감미로운 스페인의 성인 도미니코를 본받으십시오. 그분은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모든 에너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직 기도가 될 때,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을 주고 모든 이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삶이 밤에도 낮에도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747. 매일의 침묵 기도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의 날개를 달고 그 시간으로 날아 가십시오. 이는 그분과 단 둘이 만나 이야기 하는 시간, 사랑의 약속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748. 하루 여정의 시작인 아침 기도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커다란 갈망으로 이 기도에 임하십시오. 혹시 큰 갈망이 없다면 그대의 갈망을 키워달라고 그분에게 청하십시오.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루카 23,46)가 되어 할 것입니다. 예, 그분 안에 쉬십시오, 우리의 하루 일과 전체를, 그대의 실수와 넘어짐과 나약함 까지도 모두 그분 안에 던져 버리십시오. 사랑으로 그분 안에 고요히 쉬

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두운 순간들에 그분을 찾으 십시오.

머지 않은 날, 어느 해질 녘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해질녘에 영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요한 19,30).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루카 23,46.)

749. 하느님..., 신앙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신적 사랑을 흠뻑 들이 마시고 싶습니다. 거기 끝없이 무한한 당신 광채의 그늘 아래, 당신의 무한한 시선으로... 영원하고 신비롭고 절대적인 당신의 현존으로 제 영혼이 휩싸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침묵 중에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신비스런 밀실 안에 영원토록 머무르게 하여 주소서.

750. 사물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비를 기쁘게 나눠 주십시오.

751. 그대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의 신비를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느님은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

로 영혼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느님의 평원은 목마른 형제들의 평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의 삶이 그들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신선한 폭포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52. 침묵 중에 우리 들어서 하루 종일 이야기 할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753.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 마음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 (시편 26,9). 예, 당신을 찾고 만나기 위해 제 마음이 고동칩니다..

이제 우리 눈길을 오로지 흠숭하올 당신 얼굴에 고요히 머물게 하여 우리 마음이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754.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수많은 시간을 그분을 관상한 다음에야 하느님은 당신을 보여 주십니다. 그때에 비로서 한결같이 사랑하고, 지칠 줄 모르고 희망하며, 믿음으로 타버린 두 눈동자로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55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삶은 온전히
고요해져야 합니다. 사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더 나아가 사물들
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756. 정상은 저 깊은 심연에, 자기 비움과 낮춤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 허무의 고요한 심연 안에 정상이 있습니다. 그 허무에 까지
도달하도록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것은 말없는 기도, 조용한 기도
에 달려 있습니다.

757. 영혼은 침묵하고, 오직 하느님만이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 자
신과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하느님께서 홀로 말씀하
시는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 영혼의 신비스런 동굴 안에서
방해 받지 않으신 채, 당신 친히 말씀하시고 또 대답하시도록 하
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그대 가난한 삶에 생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

758. 오직 관상 기도만이 깊은 차원의 영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사도들과 선교사들의 설교가 영혼들 안에 상처를 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선가 드러지는 관상기도가 그들의 추진력과

활동과 설교에 효과를 불어넣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의 국제 광장으로 그대를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모든 이를 위해 살고, 그의 가슴은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며 힘차게 박동합니다.

759. 그대 최고의 휴식은 하느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760.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복잡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으며 말 없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난하고 한계 많은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발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씻어주고, 감싸주고, 뜨겁게 해주시고 만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온 세상을 그대 영혼 안에 사랑으로 담으십시오. 그대 마음에 품고 봉헌하십시오. 여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761. 우리 인류 공동체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대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숫염소의 가족을 두르고 성부 앞에 나서십시오. 그 가족에 세상 형제들과 그들의 문제들이 새겨

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분과 성모님께 맡기십시오. 그대는 온 우주를 끌어 안고 하느님 안에 사십시오. 모두가 그대와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다른 형태의 기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